

(11) 주차 학습내용

관련 능력단위요소		수행준거(수업내용)			
문화적 관광자원		사적			
수업 내용	관련지식 및 유의사항	○ 패총 (貝塚) ○ 고분 ○ 성지			
	실습내용 (실습절차 및 지도내용)	없음			
	실습결과 및 피드백 방안	없음			
	이론수업내용 (해당주차에 이론수업이 포함되는 경우 작성)				
준비물 (재료 및 도구)	재료(도구)명	규격	필요량	비고	
	전자교탁		1		
	빔 프로젝트		1		

사적 (史蹟)

‘사적’은 문화재 중 선사유적, 성곽, 고분, 도요지, 지식묘, 사지, 패총 등과 역사적으로 특별히 기념될 만한 지역과 시설물을 함께 일컫는 것으로서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를 가리킨다.

즉, 문화재 가운데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유적지로 국가가 법적으로 특별히 지정한 사적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역사적 기념물, 즉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큰 것으로 사적 제1호인 경주 포석정지, 제2호 김해 봉황동 유적, 제3호 수원화성, 제4호 부여 성흥산성, 제5호 부여 부소산성, 제6호 황룡사지, 제7호 망덕사지, 제8호 사천와사지, 제9호 서울 성곽 등이다.

사적은 다시 크게 인류가 문명을 가지고 생활하기 전의 시대인 유사(有史)이전의 유적, 제사 및 신앙에 관한 유적,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 산업교통, 토목에 관한 유적, 교육, 사회 산업에 관한 유적, 분묘, 비 등의 6가지로 나뉜다.

유적명	내용
유사 이전의 유적	조개더미, 유물포함층, 집자리유적, 고인돌, 선돌, 고분 등
제사 및 신앙에 관한 유적	절터, 제단, 사고(史庫)터, 전묘(典廟), 향교터 등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	성곽, 성터, 수영(水營)터, 봉수대(烽燧臺), 궁터, 고궁 등
산업교통, 토목에 관한 유적	옛 길과 독, 제방, 가마터, 장터, 식물재배지 등
교육, 사회 산업에 관한 유적	서원(書院), 사숙(私塾), 석각(石刻) 등 교육과 학예에 관한 것
분묘, 비	옛 집과 무덤, 비, 정원, 중요 전설터 등

이들 유적지 가운데 학술상, 역사상 가치가 큰 것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적은 일본강점기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에 따라 고적(古蹟)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해방 이후 남한에서는 1955년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에서 145점의 고적을 지정했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1963년에 사적으로 이름을 바꾸어 120점을 지정하기 시작하여 2017년 10월 기준으로 남한의 사적은 540건(사적 제1호~제540건)에 이른다.

문화재보호법 시행 2019.4.17. 법률 제15827호, 2018.10.16., 일부 개정
제13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보호) 3항에 의거 지정문화재의 역사적, 예술적, 학문적, 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 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보존지역 범위로 한다.

또한 제27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23조,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즉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등을 감안하여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패총 (貝塚)

해안. 강변 등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이 버린 조개. 굴 등의 껍데기가 쌓여서 무덤처럼 이루어진 유적을 말한다. 조개껍질이 지닌 석회질(石灰質)로 해서 그 안에 있는 토기(土器). 석기 및 짐승의 뼈. 뿔 등이 잘 보존되어 고고학상 귀중한 연구 자료가 된다. 조개무지가 이루어진 것은 농경(農耕)이 이루어지기 이전, 또는 원시 농업의 단계나 수렵. 어로 등 일종의 채집경제(採集經濟)의 단계이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농목(農牧)을 영위한 신석기시대의 것은 드물고, 이에 앞서 수렵. 어로를 영위한 중석기시대의 것이 많으며, 한국에서는 신석기시대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유럽의 경우 북해 연안 등의 조개무지가 유명한데, 그 가운데 특히 덴마크의 유틀란트반도에는 큰 조개무지가 많다.

현재까지 발견된 것으로는 1907년 일본인 학자 이마니시 류가 최초로 조사 발굴한 김해조개무지를 위시하여 함북 웅기, 함남 북청(北靑), 황해도 몽금포(夢金浦), 경기도 덕적도(德積島), 경남 웅천(熊川), 고성(固城), 양산(梁山), 마산(馬山), 동래(東萊), 부산 동삼동(東三洞), 경기도 용진군(甕津郡) 시도(矢島) 등의 조개무지가 대표적이다.

이들 한국의 조개무지는 신석기시대에 형성되었다가 농경생활이 본격화된 청동기(靑銅期)시대에는 거의 형성되지 못한 것 같으며, 어업기술이 비약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 철기시대에 들어와 김해, 웅천, 양산 등 경남지방에 그 유적을 남겼다.

이 가운데 김해에서는 왕망(王莽)의 화천(貨泉)과 유리로 만든 조옥(棗玉)이 발굴되어 대륙과 교역한 사실을 알려주었고, 탄화미(炭化米)가 출토되어 벼농사의 역사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또한 웅기조개무지에서는 온돌지(溫突地)가 발굴되어 고대인들의 난방시설 형태를 알려주었으며, 매장된 인골(人骨)의 위치로 동침양와신전장(東枕仰臥伸展葬)의 매장풍속을 알게 되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서 발견된 패총은 선사시대의 인류가 수렵, 어로 등을 채집하여 식료로 먹은 조개껍데기가 쌓여 이루어진 퇴적층 유적이다.

웅천조개무지와 양산조개무지는 바닷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형성되어 있어 당시 이 지역이 해안이었음을 알게 해주는데, 특히 양산조개무지는 현재의 해안선과 40km나 떨어져 있다. 이 밖에 마산의 산성(山城)조개무지에서는 야철지(冶鐵地)도 발견되어 철기시대에도 조개무지가 형성되었음을 알려주고 있다.

고분

고대의 무덤으로 과거 및 현재의 무덤 중에서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자료가 될 수 있는 분묘를 일컫는다. 고분은 어의 그대로는 단순히 옛날 무덤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고대국가가 형성될 무렵을 전후하여 만들어진 지배계층의 무덤을 가리킨다. 과거 인간사회의 여러 측면을 밝혀주는 고고학에서 무덤이 중시되는 이유는 인골과 무덤 구조, 껍묻거리 속에 묻힌 사람의 성(性), 연령, 사회적 신분과 관계 등 각종 사회적 인성들이 잘 반영되어 있어 당시의 시대상과 사회상 등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덤을 지칭하는 포괄적 개념으로는 보통 분묘(墳墓)가 사용되는데, 이를 나누어 지상 위에 높이 솟은 것을 ‘분’, 편평한 것을 ‘묘’로 구분하거나 지상에 무덤의 표식적 시설이 있는 것을 ‘분’으로, 시신이나 관을 안치하는 매장주체시설을 ‘묘’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에 의하면, 고분은 일단 묘를 보호하면서 그 존재를 보이기 위해 봉토와 같은 표식적인 시설이 있어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분의 전제조건으로서 다른 무덤들에 비해 입지가 우월하고, 매장주체부가 훨씬 크며, 무기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거나, 혹은 순장(殉葬)이 이루어진 점 등이 거론된다. 한편 고분보다 봉토가 높고 크며, 확정된 일정 규모의 묘역을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고, 귀금속의 장신구와 무기, 마구 등이 보다 많이 출토되는 것을 고총(高塚)고분이라 구분하기도 한다.

그런데 무덤의 규모가 크고 복잡할수록 그 축조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을 동원해야 하고, 껍묻거리의 양과 질이 풍부한 것은 묻힌 사람과 그 사람이 속한 집단의 우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고분은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그 포괄하는 내용에 의해 분묘→고분→고총고분 순으로 될 수 있으며, 사회발전단계에 따라 역시 후자가 늦게 발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고분의 모습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위의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며, 그 발생시기에도 차이가 있다. 그 시기를 보면 고구려에서는 대략 기원 전후 무렵에, 백제와 신라. 가야 지역에서는 2세기 후반 ~ 3세기 무렵에 고분이 출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분은 이러한 여러 요소들이 복합되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으며, 여러 속성들이 결집되어 정형화된 것을 묘제(墓制)라고 한다.

성지

종교적 또는 전승적(傳承的)으로 신성시되는 구역으로 성역(聖域), 성소(聖所)라고도 하며, 불교에서는 영장(靈場) 또는 영지(靈地)라고도 한다.

격리 또는 금기(禁忌)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연숭배 대상과는 구별된다.

성지는 자연의 산, 숲, 총림(叢林)인 경우도 있으며, 토지의 한 구획을 설정하여 인공적으로 무덤, 토단(土壇), 비석 등을 설치한 곳인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대표적인 건물은 정동교회이며, 불교의 대표적인 성지로는 조계종 제22교구본사인 대흥사를 들 수 있고, 천주교의 14개 지역 교구 중 서울에는 명동성당 등이 있다. 또한 서울 용산구 청파동 71-3번지에는 통일교의 발상지가 있다.